

## [ 웰빙 ]

# 숙면이 보약이라는데 잠자리 편안하셨나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의태(34·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경기불황으로 순님도 줄어든데다 지난해 초 KCP주식이 상장된다는 소문을 듣고 장외주식 시장을 통해 2천만원어치를 매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액의 80%를 날렸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 평균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때문에 '얼마나 잘 자느냐'는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는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오랜 시간 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꿈, 깊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느냐에 관건이다.

잠을 설치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되면 뇌의 신경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감각적인 반응이 무뎌지면서 언어능력과 기억력도 감퇴한다. 심지어는 일상생활 중에 잠깐씩 죽면상태에 빠져 환상을 보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숙면으로 '보약'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들인다. 회식과 야근 등으로 취침시간을 일정하지 않다면 기상시간이라도 일정하게 치킨다. 주말이나 쉬는 날도 마찬가지. 일어나는 시간이라도 규칙적일 경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데 몸이 더 빨리 적응해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목욕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고 근육 이완

## 베개 높이 누른 상태서 6~7cm

## 멜라토닌 많은 바나나도 도움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체온을 적당히 높여 주면 좋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기운은 동작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 주는 것 역시 체온을 적당히 높여주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체온을 적당히 높여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침실은 어둡게, 베개는 시원하게=빛은 수면을 돋는 멜라토닌 성분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때문에 침실에는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짙은 색 커튼을 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파란색과 녹색, 베이지 계열 커튼을 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는 배고누웠을 때 자신의 주변 정도 높이로, 베개를 누른 상태에서 6~7cm가 적당하다.

또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재질이나 팝 흡수가 잘 되는 천을 선택한다.

◇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잔=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다. 우유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이 성분이 체내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닭고기, 구운 간자, 요구르트, 치즈 등이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땅콩, 버터,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바나나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호박은 비타민 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 B1이 풍부해 몸의 피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커피, 흥차, 녹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각성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목욕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라=잠자리에 들기 전

적절한 높이의 베개는 배고누웠을 때 자신의 주변 정도 높이로, 베개를 누른 상태에서 6~7cm가 적당하다.

또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재질이나 팝 흡수가 잘 되는 천을 선택한다.

◇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잔=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다. 우유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이 성분이 체내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닭고기, 구운 간자, 요구르트, 치즈 등이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땅콩, 버터,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바나나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호박은 비타민 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 B1이 풍부해 몸의 피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커피, 흥차, 녹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각성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목욕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라=잠자리에 들기 전

적절한 높이의 베개는 배고누렸을 때 자신의 주변 정도 높이로, 베개를 누른 상태에서 6~7cm가 적당하다.

또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재질이나 팝 흡수가 잘 되는 천을 선택한다.

◇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잔=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다. 우유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이 성분이 체내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닭고기, 구운 간자, 요구르트, 치즈 등이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땅콩, 버터,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바나나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호박은 비타민 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 B1이 풍부해 몸의 피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커피, 흥차, 녹차, 초콜릿,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각성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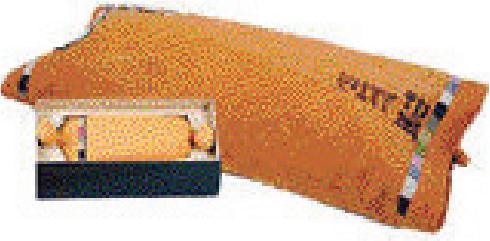
◇ 목욕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라=잠자리에 들기 전



잠자는 자세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극복에 무리를 주는 등 숙면을 방해한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숙면 베개' 만들어 보세요



## 숙면 돋는 상품도 많아요



### 멜라토닌 함유한 기능성 우유

### 아로마 향 풍기는 에센셜 오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숙면 도우미' 상품도 있다.

서울우유의 '굿 나이 밀크'(사진 왼쪽)는 수면 유도 효과가 뛰어난 멜라토닌 성분이 기준 우유보다 많이 들어있는 기능성 우유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해 멜라토닌 외에 다른 척가들은 일체 넣지 않았다. 특히 저지방 우유라 자기 전에 마셔도 칼로리에 부담이 없어, 다이어트나 피부관리 등을 위해 숙면이 필요한 여성들뿐 아니라 아근 등 잠이 부족한 직장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가격은 750ml 2천 900원.

온은한 아로마 향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바디샵의 '파이어 나이 드리미 필로우 앤 바디 미스트'(오른쪽)는 감정을 정화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드는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대추 추출물, 제라늄 등이 함유된 스프레이로 밤 시간 향을 유지시켜 더욱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드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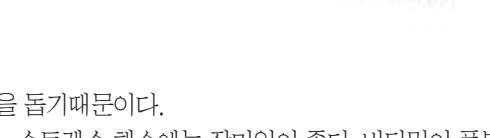
잠들기 전 전신 또는 베개 등에 3~4회 뿌려주면 된다. 가격은 100ml 2천 4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약쑥 베개 살충효과에 피로회복



### 장미잎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숙면에 도움이 되는 베개속으로는 쑥이나 녹차, 허브 등의 재료가 들어간 것이 좋다. 그러나 천연재료는 집집마다 차운다. 그러나 천연재료는 집집마다 차운다.

약쑥이 들어간 베개는 살충효과가 있어서 벨레들이 접근하지 않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자는 동안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메밀껍데기를 넣은 베개는 메밀의 찬 성질 때문에 머리에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또 차를 마시고 난 후 녹차잎을 말렸다가 메밀 껍데기와 섞어 만들면 좋다. 녹차 특유의 향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

을 돋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장미잎이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며 두통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장미잎은 향기 좋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국화과의 캐모마일도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메밀껍데기를 제외한 재료들은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이라 잘 부서지므로 솔베개에 한줌씩 넣고, 쑥이나 녹차의 경우는 메밀껍데기와 섞어서 만든다.